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거장 티보르 바르가
“오이스트라흐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마에스트로“ 저널리스트 베른트 호페
“완벽하다!“ “음악의 본질을 표현하다“ 스트라드
“월드스타의 탄생!“ *Vorarlberger Zeitung*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 시대의 가장 떠오르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평가되고 있는 김응수는 초청공연으로 스위스 비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독일 퀘팅엔 심포니 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미국 애리조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을 하였고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태리, 영국 등에서 수 차례 독주회 및 실내악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KBS교향악단, 서울바로크합주단, KT챔버오케스트라, 부산시향, 울산시향, 충남도향, 경북도향, 창원시향, 대구시향,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구 멜로스합주단, 원주시향, 진주시향 등과 협연하였으며 특히 2014년 봄, 광주시향과 오른 교향악축제에서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KBS 클래식FM과 ARTE TV에 생중계 되었고 현재 재방송되고 있다.

2014년 6월, 2011년 조수미가 공연하여 더욱 알려진 55년 역사의 체코의 권위 있는 리토미슬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레오스 스와로브스키와 파르두비체 챔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관객전원이 기립, 15번의 커튼콜을 받는 2014년 페스티벌 최다 커튼콜을 기록했다.

같은 해,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까다로운 프라하의 청중들을 사로잡으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역시 유럽 최고의 연주자 반열에 오를 만 하다’ 라는 찬사를 받았다.

김응수는 2012년부터 매년 8월, 유럽 왕족들과 VIP들이 찾아오는 오스트리아 레히클래식페스티벌의 예술감독 및 연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 ‘월드스타의 탄생!’ 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유럽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연주가 집중 조명되며 레히클래식페스티벌의 오프닝 공연은 ORF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되었고, 전 공연은 라디오로 생중계되어 주목을 받았다.

일찍이 유럽을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낸 김응수는 지네티 국제콩쿨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쿨 1위, 티보르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쿨 2위, 리피저 국제 바이올린 콩쿨 청중상, 모차르트상, 현대곡상, 비루투오소 상 및 3위 입상, 피아트라 리구레 국제 콩쿨 1위, 아바도 국제 바이올린 콩쿨 1위, 칼타니세타 국제 실내악콩쿨 특별상, 슈포어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8년 이태리 베로나시가 후원한 CD 발매를 시작으로 2010년 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Telos Music Records에서 음반이 발매되었다. 2012년부터 매년 레히 페스티벌 라이브 연주가 음반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높아지는 명성과 비례하여 미국과 영국 음반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김응수는 현재 오스트리아 Marlies Wagner Management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 서울예고 졸업, 빈 국립음대, 그라즈 국립음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모두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고, 2012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